

[서 평]

한국 군사 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최형국*

1.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전쟁이 수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지구상 어디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전쟁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과 끝에 새로운 역사의 창조와 낡은 역사의 파괴라는 현상을 공존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에 벌어진 전쟁을 보면, 국왕을 비롯한 집권계층은 물론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전 방위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모호해질 정도로 전장의 범위가 확대되기에 그 피해의 규모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쟁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 중앙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회 전반을 통째로 뒤흔들어놓게 되는 것이다. 시간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역사라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전쟁이 언제 어디서 새롭게 발발할지 모른다. 그래서 역사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말할 때,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평화’라는 말 대신 잠시 쉬고 있다는 의미의 ‘휴전’ 혹은 ‘정전’이라는 말이 늘 사람들의 마음속, 뺏속 깊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 속에서 ‘평화’는 ‘휴전협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더욱 피부에 와 닿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런 전쟁이라는 역사 속 거대한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 대부분이 그 겉모습에만 집중해왔으며, 이런 관점에서 전쟁을 조명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전통시대 ‘전쟁’이라는 기억은 상당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어 단순한 시간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전투와 뛰어난 영웅들이 맹활약을 펼치는 모습으로 한정된다. 결국 이러한 전통시대의 전쟁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몇 명의 이름난 영웅이나 특정 사건 위주의 파편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전쟁을 통해 기억되는 것이 한 개인이나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집중하게 해 전쟁 이전의 준비상황이나 그 저변에 깔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디론가 증발시켜 버린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한 개인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시작되거나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관된 사람들과 다양한 사상과 사건들이 버무려져 진행되는 것이다. 그중 군사사상의 경우는 이전의 전쟁 경험이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두고 현실적 외교환경과 자국의 군사능력을 고려한 일련의 사상체계로 총체적인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특히 여타의 사상체계의 경우는 주로 학문적 관점으로 정의되어 거시적 분석이나 미묘한 사상사적 구분으로 한정되지만, 군사사상의 경우는 국방전략과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미시적으로는 군사들의 정신사상 무장이나 군사훈련에까지 연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사상은 불확실한 전쟁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군사적 대안이나 철학을 만들어 유사시 군대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일사불란한 사고체계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과 같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군사사상의 갖는 독특한 성질은 비단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21세기에 접어들며 초고속 무선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시대가 펼쳐지면서 다양한 접속 통로를 통해 군인을 비롯하여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양상을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한 시대로 발전했기에 군사사상의 의미성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올바른 군사사상의 정립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전쟁에 대한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2.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군사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박창희 교수의 「한국의 군사사상

발전방향」의 연구에서는 동서양 군사사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사상의 현실태의 분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거시적 형태의 연구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¹⁾ 또한 노영구 교수의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15세기 군사사상가 梁誠之를 중심으로-는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동향 및 근세 한국 군사사상의 일례를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군사사상가였던 梁誠之를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²⁾

또한 근래에 들어 단순한 제도사적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근제사의 한계를 넘어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거나 당대의 한중일 전쟁관련 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동아시아사적 입장에서 군사사상을 재정립하려는 거시적 연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³⁾ 그리고 인물사적으로는 조선후기의 경우 국방력 강화의 정점에 있었던 18세기 정조시대를 중심으로 정조의 군사사상 정립의 배경과 병서편찬 과정에 대해 연구한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⁴⁾

여기에 각 대학의 군사사학과와 관련된 연구자 및 한국국방연구원 및 한국군사학회 등 군사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사상사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학위논문의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⁵⁾

-
- 1) 박창희 외, 「한국의 군사사상 발전방향」 『전략연구』 64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 2) 노영구,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15세기 군사사상가 梁誠之를 중심으로」 『군사학연구』 통권 7호, 군사연구원, 2009.
 - 3) 김시덕, 『전쟁의 문헌학』, 열린책들, 2017.
 - 4) 최형국,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정조의 무예사상과 장용영』, 경인문화사, 2015.
 - 5) 최근들어 10여개의 대학에 군사학과(부)가 만들어지면서 군사사상사와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방대학원을 비롯한 군사학 관련 대학원의 학위논문 주제로 군사사상사 관련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神器秘訣』·『演機新編』·『兵學指南演義』·『風泉遺響』 등 수십여 종의 다양한 전통시대 병서 번역작업을 진행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어 전통시대 군사사상의 본질적 모습을 보다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紀效新書』·『壇突捷錄』 등 당대 중국의 병서 수입 및 요약 정리하여 조선에 영향을 끼친 여러 병서들의 影印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앞으로 관련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전통군사사상의 변화와 특성을 심도있게 살핀 백기인 책임연구원의 『한국 군사사상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는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군사사상사 연구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발전시켜 전통시대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제 1 부 삼국의 군사사상

제 1 장 삼국의 군사사상 형성

제 1 절 한국 군사사상의 기원

제 2 절 삼국의 군사제도·문화

제 3 절 호국사상과 상무교육사상

제 2 장 삼국-통일신라의 병학

제 1 절 삼국의 병학과 일본 전래

제 2 절 통일신라의 병학

제 2 부 고려의 군사사상

제 1 장 북방정책과 군사제도론

제 1 절 북방정책·영토의식

- 제 2 절 군사제도와 병농일치사상
 - 제 2 장 군사전략과 병학체계
 - 제 1 절 군사전략전술
 - 제 2 절 병서간행과 병학체계
 - 제 3 부 조선의 군사사상
 - 제 1 장 오위진관제와 진법론
 - 제 1 절 오위진관체제론
 - 제 2 절 오위진법과 척법 논의
 - 제 2 장 축성론과 화포론
 - 제 1 절 성곽축성론과 관방론
 - 제 2 절 신무기 개발론
 - 제 3 장 군사사상의 전환과 새로운 국방전략
 - 제 1 절 양란 이후의 국방의식
 - 제 2 절 국방전략 변화와 민보방위론
- 맺음말
- ‘상무정신(호국사상)’의 현대군사상적 발현

서론에서는 군사사상에 대한 동서양의 정의시작으로 하여 그 동안의 관련 연구 성과물들을 정리 및 검토하였다. 저자는 조선후기 武班이었던 宋奎斌 쓴 『風泉遺響』의 연구를 비롯하여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통시대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기에 보다 구체적인 군사사상사에 대한 접근을 본서에서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관련 연구의 성과물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장점이기도 하다.

제1부에서는 삼국의 군사사상을 형성배경과 병학사상 전개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먼저, 고조선의 외교와 전쟁 전략의 핵심을 짚으며 고대사의 흐름 속에서 이후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 시대의 군사사상의 변화를 다양한 사료의 검증을 통해 재정립하였

다. 고구려의 경우는 독특한 군사체제를 시작으로 하여 군사훈련 및 산성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백제는 국왕 중심의 친솔·전렵·대열의식 등을 제천의식과 함께 다뤘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지방장악의 과정 및 군사적 발전형태에 대해서 살폈다. 여기에 삼국의 호국사상과 상무교육사상이 당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상사와 신앙 즉 종교학과 접목하여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군사교육사상의 경우 조의선인과 화랑도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군사사상이 호국사상의 뿌리였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특히 삼국의 병학사상이 일본에 전래되는 과정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일본서기』나 일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섭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제2부에서는 고려의 군사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당대 외교사적 관점에서 북방정책과 이에 따른 군사제도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당대 전쟁의 상대였던 거란, 몽골 등의 북방이민족에 대한 대응전술을 중심으로 고려의 군사사상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청야입보전과 견벽고수방식과 같은 고려만의 전술사적 특성을 짚어내었다. 여기에는 治所城이라 불렀던 지역세력 거점으로서 일종의 요새와 같은 특수성곽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을 살펴보았으며, 해도입보와 요해처 방어전략 등 실제적인 고려의 방어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어전술에서 활용했던 성곽전술과 무기체계 등 미시적인 내용까지 다뤘다. 특히 원나라의 침입이후 고려 군사제도의 붕괴와 원 군제의 영향에 따른 변화의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군사전략 설정의 특성과 그에 따른 병학체계를 성곽전과 무기체계 그리고 병서간행 추이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부는 조선의 군사사상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조선전기의 군사사상의 정립을 오위진관제의 구축과 진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오위제의 소속 병종과 선발 방식은 물론이고 계급과 부대편성의 형태까지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병서인 『陣法』과 『癸丑陣說』 등 일련의 병서 편찬의 의미성 및 당대 군제의 변화상을 살펴 보았다. 끝에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의 군사제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戚法’의 도입양상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조선의 축성론과 화포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각 시기별로 都城의 수축 의미의 변화상과 실질적인 공사방법론 및 전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화포의 도입과 개량형태를 정리하였다. 먼저 축성론의 경우는 산성론을 비롯한 제관방론 속에서 성곽의 축조형태나 축조기술의 변화상을 짚어 보았고, 여러 축성과 관련된 당대 학자들의 관방의식을 구체적 사료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포론의 경우는 신무기 개발론의 입장에서 화포의 개량사업 및 일발다전법, 화차의 개발 등 당대 급변하는 화약무기의 변화상을 실제 전술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군사사상의 전환과 새로운 국방전략의 모색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양란 이후 전통적인 군사사상이 어떠한 문제제기를 통해 전환되었는지 대한 논의의 과정을 짚어 보았다. 특히 임란이후 척법 수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여기에는 五衛制 복구 양상의 의미성과 실질적인 군제상의 변화까지 살펴보았다. 특히 임란이 후 군사전문가 집단의 출현이라는 독특한 시대성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필자는 ‘무신의 두드러진 정계 진출과 함께 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반직을 독점하는 武班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관방론들이 제기되었다라고 풀이하였다. 특히 우리가 실학자라고 부르는 여러 유학자들 중 송규민, 양완, 이정집은 대표적인 무반가문의 후

예들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병학서들이 편찬되었고 당대 병학 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전략의 변화 중 도성수비론의 변화와 민보방위론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도성수비론의 경우는 숙종대부터 논의되었던 ‘都城死守論’ 즉, 국왕이 거처하고 있는 도성을 목숨을 걸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가 당대 만들어진 배경과 구체화 되는 과정을 짚어 보았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때 국왕의 파천과 이후 북한산성의 수축과 강화성에 대한 수축론의 논의 과정 및 이괄의 난 이후 남한산성 강화론의 배경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후 숙종대를 거쳐 영조대인 1747년에 반포한 『御製守城綸音』 및 『守城節目』 등의 전략적 의미성 및 주변 산성과 방어체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러한 도성수비론의 변화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실제적이 수비체제의 변화상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 설명하였다. 특히 당시 이러한 도성방위전략의 변화를 유학자였던 韓元震과 宋奎斌 등 관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논의 과정을 하나씩 짚어 가며 논리성을 높여냈다.

그리고 민보방위론의 경우는 18세기 후반 이후 양역변통론이나 군역의 폐단 등을 이유로 관군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여 향촌자체방위론이 등장하는 시대상을 설명하였다. 가장 먼저 위백규와 안정복이 주장했던 병농일치제를 통한 군사력 보강과 서원과 향교에 관방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武學의 설치 주장 등 민간 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안정복의 경우는 당시 안정적으로 보급되었던 향촌 자치 규약인 ‘鄉約’체제 속에서 중국의 보갑법을 가미한 향촌 편제를 도입하여 일종의 ‘향촌자치군사권’의 개념을 새롭게 주장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안정복의 향촌방위론이 정약용

이 제시한 민보방위전략과 어떤 연관관계 속에 있는지 그 의미성을 살펴 보았고, 이를 통해 정약용이 안정복의 향촌방위론의 핵심적 내용을 승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다양한 군사개혁관련 내용은 丙寅洋擾를 거치며 실질적으로 조선 국방위기감이 고조되었던 고종대에 새로운 변화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살폈다. 대표적으로 총용사였던 申櫛이 제기한 군제개혁안인 ‘군무6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후 삼도수군통어사를 지낸 조우석이 집필한 『武備要覽』의 의미성과 세부내용에 대한 분석들을 싣고 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는 ‘상무정신(호국사상)’의 현대군사사상적 발현이라는 제목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상무의식이 군사사상사적으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적용가능한지 필자가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필자는 한국의 군사역사에 관류하는 군사사상의 원류인 상무정신과 호국사상이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도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을 분출시킨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사상은 독립전쟁의 와중에 한국 근대군사사상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과 합치되었고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근(현)대적 국민군대’형성의 모태가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사상의 흐름은 ‘현대전쟁’의 양상에 맞는 정규군대의 건설 및 대외 관계전략과 유연하게 연동시킨 ‘연합국방’을 통한 거시적인 국방건설전략으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국민개병제에 의한 ‘국민의 군대’의 통합적 에너지를 수렴한 ‘총력국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

이상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책은 한국의 고대부터 조선말까지 상당히 긴 시대를 군사사상사라는 큰 주제로 다뤘기에 일정부분 소략하거나 부족한 사료로 인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조금은 있으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통합하여 전통시대 군사사상사 연구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각 시대별로 주요한 전쟁이나 전투 그리고 무기체계의 변화 및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군사사상사의 핵심을 짚었기에 통합적인 안목 속에서 미시사적인 치밀한 내용들까지 언급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는 삼국의 각축전 속에서 발현되었던 군사사상사의 비교와 고려시대에는 북방세력과의 대규모 전쟁수행 과정 속에서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활용된 내용 등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전통적인 기병중심의 전술체계에서 임란 후 조총과 화포 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전술 및 무기체계 변화를 군사사상가의 제이론들과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다뤘기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향후 한국 군사사 연구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나 서양의 군사사상사 연구의 동향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당대 인물을 통한 접근 방식이다. 실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한 인물이 진행한 군사 정책이나 사상은 당대의 군사사상의 흐름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래에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의 일반 사상사나 철학사를 고민하던 연구자들이 일종의 계통학적 연구나 비교인물사의 연구를 통한 접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접근도 일정한 의미는 있겠지만, 단순히 한 개인의 군사사상에 대한 접근을 ‘사상사’의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상당부분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는 군사사상은 필자가 서론에서 전제했듯이, 당시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외교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군사전략 뿐만 아니라 당대의 무기체계나 상대국의 전술전개방식 및 군사적 위협요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군사사상사에 접목시켜야만 올바른 평가나 이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당대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흉년이나 날씨나 기상 상태 등 실제 군사 운용시 고려되는 가장 현실적인 배경 등 다양한 제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 인물의 사상사에 녹여내야만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는 안타깝게도 ‘군사사상사 연구’가 갖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기존의 사상사적 연구의 틀 안에 단순히 ‘군사’라는 부분을 덧붙여 상당히 철학적이거나 난해한 구조로 군사사상사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연구내용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실제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나 배경으로 그러한 사상을 설파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지경이다.

다음으로는 거시적인 관점의 틀이 주를 이루는 군사사상 연구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변화나 군사 신체훈련의 변화 등 미시사적인 연구가 보강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상은 단순히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으로 그치기 쉽다. 그러나 군사사상은 실제 목숨을 다투는 생존의 현장을 관통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지도자급이나 최고계급의 군사지휘권을 장악한 인물의

군사사상은 실제로 전투에서 창칼이나 총탄과 조우하는 일반 군사들의 목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단어의 활용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 분석은 오히려 간단 명료하고 가장 실제적이어야 할 군사사상사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미시적인 군사훈련의 변화나 무기체계의 변화 등 군사현장의 변화가 군사사상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연구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군사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군사사상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인 당대의 군사적 기본 배경 즉, 거시적인 전략 전술체계는 물론이고 당대의 무기체계나 지리나 기상환경 등과 상대국의 상황이나 위협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 인물의 군사사상사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사상이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파악 및 미시사적인 접근 등 다양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